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홀수형

- 이 문제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문제유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철수는 밤양갱을 먹는다”에서 우리는 흔히 밤양갱이라는 ‘감각적 인’ 것을 떠올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에 관계하면서 살기도 한다. 가령 우리는 철수와 밤양갱의 집합, 철수가 사람이라는 사태, 철수가 여성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들은 ‘추상적 대상’이라 불린다. 대상들이 주체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는 철학자들은 이것들을 ‘논리적 대상’이라고도 부른다. 만일 논리적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논리적 개념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 개념들을 가지게 되는가? 논리적 대상들은 어떠한 시공간적 연결성도, 감각적 성격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문은 오랫동안 인식론과 인지과학의 오래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현실에 대상이 실재한다면 우리의 주관은 그것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주체가 대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와 달리 현상학에서는 오로지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현상되는가에 주목한다. 현상학자들은 ‘의식’ 개념을 사용하여 대상이 어떻게 주체에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즉, 대상이 주체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철학적 용어이다. 현상학자들은 의식을 통해 ‘나타남’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대상들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확인한다. 현상학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한다. 첫째로 의식은 그것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의식은 모든 앎의 근거라는 점이다.

의식은 ‘지향성’을 가진다. 이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으로 의식이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고 하자. 여기서 나는 밤양갱이 실재하는지 의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뇌 속에 연결된 컴퓨터 혹은 신에 준하는 존재가 밤양갱의 환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식의 첫 번째 가정에 따라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는 것, 즉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를 의식의 ‘명증성’이라 한다. 명증성은 경험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이처럼 의식은 스스로에게 명확하고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밤양갱을 먹는 경험을 통해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라는 나의 믿음이 정당화되면, 이 믿음은 참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면 통상적인 고전 철학의 노선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긴다. 보통 앎(Knowledge)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참은 정당성에 독립적이다. 즉, 인식적 정당화의

성공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인식적으로 정당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참이 된다. 이 조건이 ‘상호주관성’이다. 예를 들어 내가 밤양갱을 먹고 있다고 정당하게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속한 현실에 있는 공동체인 우리의 믿음이 이에 부합한다면 의식의 두 번째 가정에 따라 나의 믿음은 참이다. ‘우리’가 정당하게 믿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상학자인 후설은 이를 ‘의식에 대한 대상의 구성’이라 명명한다. 이는 모든 대상 그리고 대상적 영역이 의식적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1. 윗글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도 논리적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논리적 대상은 주체의 인식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정당화된다.
- ③ 의식은 우리의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대상의 한 형태이다.
- ④ 현상학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대상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가에 주목하여 대상의 나타남을 설명한다.
- ⑤ 의식의 명증성을 따른다면 대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문장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문장:** 나는 수능 수학 30번 문제를 계산하고 있다.

- ① 의식의 명증성에 따른다면, 나의 계산이 실제로 참인지는 의심할 수 없다.
- ② 의식의 명증성에 따른다면, 계산하는 경험을 통해 나의 계산이 정당화되면 나의 계산은 반드시 참이다.
- ③ 의식의 명증성에 따른다면, 계산하는 경험을 통해 나의 계산이 정당화되더라도 계산이 실제로 참인지 의심할 수 있다.
- ④ 의식에 대한 대상의 구성에 따른다면, 내가 계산을 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믿고 있고, 나의 믿음이 어떤 지역에서의 공동체 믿음과 부합한다면 나의 믿음은 참이다.
- ⑤ 의식에 대한 대상의 구성에 따른다면, 나의 계산이 실제로 참인지 의심하더라도 내가 살았던 지역에서의 공동체 믿음과 부합한다면 나의 믿음은 반드시 참이다.